

익산시,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본격 착수

7월초부터 기존 육교 철거 2020년 7월까지 완료키로

익산시(시장 정현율)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에서 추진하는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이 대체우회도로 확·포장에 대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 추진된다.

27일 익산시 최광석 건설교통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평화육교 재가설사업에 따른 대체우회도로 확·포장에 대한 실시설계와 보상을 마무리하고, 3월말부터 대체우회도로 설치를 시작으로 평화육교 재가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앞서, 익산시는 기존 평화육교 철거 및 재가설에 따른 대체우회도로 계획에 대한 평화동 및 목천동 지역주민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체우회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실시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2차선에 걸쳐 지역주민들에게 세부적으로 단계별 추진공정을 포함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익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평화육교 재가설사업에 따른 지역주민과 도로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20일 익산경찰서, 시내버스 및 택시 등 운송업체 이해관계자와 유관기관 교통대책수립 합동회의를 현대건설 현장상황실에서 개최하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하였다.

평화육교 재가설사업은 노후 위험교량을 철거하고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및 급커브 노선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3월말 대체우회도로 1.10km에 대하여 확·포장사를 시작해 6월말까지 마무리하고 7월초부터 기존 평화육교를 철거, 2020년 7월까지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에서는 평화육교 재가설공사와 동시에 KTX호남고속철도 공용구간 0.86km의 병목지점을 2선 철로에서 4선철로로 시설개량을 실시하며 시공은 국내 건설 1군체인 (주)현대건설이 시공한다.

최광석 건설교통국장은 "우리시 최대



27일 익산시 최광석 건설교통국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평화육교 재가설사업에 따른 대체우회도로 확·포장에 대한 실시설계와 보상을 마무리하고, 3월말부터 대체우회도로 설치를 시작으로 평화육교 재가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현안사업인 평화육교 재가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평화동 제일아파트, 클레시아아파트, 무네미 지역주민을 비롯한 목천동 소상공인 비상 대책위원회, 이리공용버스터미널, 시내버스, 택시 운송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주민 및 도

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공사 기간 단축 등 최선을 다 할 예정이며,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익산시 최대 숙원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문택규 군산시장 예비후보

"경제비상대책위원회 속히 구성 운영해야"

문택규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경제 위기에 따른 군산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시급히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특히 "전북도가 최근 정부에 신청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관련 사업종류만 88 건에 이르고 한국은행 금융지원 계획, 고용노동부 고용재난지역 지원사업 등 각기 다른 부처별 지원항목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정부의 비상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원 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국가예산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군산 시민의 이익과 군산의 미래전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군산시와 상공인단체,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정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서둘러 구성, 군산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개소당 최대 500만원... 다중 이용시설 대상 내달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접수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버려지는 빗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소형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최대 500만원(자비10%포함)으로 익산시 관내 개인 및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로 구성된다.

모인 빗물은 빗발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마당을 청소하는 등 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크다.

시는 2015년 5개소, 2016년 7개소, 2017년 7개소의 설치를 지원해 여러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나아가 해당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빗물만 잘 관리해도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홍보해왔다.

또한 올해도 5개소의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익산시 관내 개인주택 및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소유자는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익산시 하수도와 담당자(☎889-4427)에게 접수하면 적합성 검토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마한로타리클럽 태양광 무상시공 업무협약

익산시(시장 정현율)와 익산마한로타리클럽은 27일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에게 가정용 태양광을 무상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마한로타리클럽이 주관하고 아우름봉사단과 태양광 전문사업체인 강남NG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맞춰 취약계층 가정 등을 대상으로 매년 4회씩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수혜 가구는 매년 최소 50만원에서 1백만 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과 다자녀 가정의 전기료 부담 경감 목적의 민·관 협업사업으로 민간단체에서 가구당 3kw용량의 태양광을 시공해 무상제공하고 시는 대상자 추천 등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외국어교육센터 설립 위한 업무협약

익산시(시장 정현율),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전북도외국어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은 27일 익산시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익산외국어교육센터(가칭)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외국어 소통능력 신장과 세계 문화 체험을 위한 익산외국어교육센터 설립에 관하여 기관들 간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내용은 익산외국어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 익산시가 사업비 45억원 중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익산외국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력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익산외국어교육센터는 관내 학생 및 교사 그리고 시민들에게 영어과정, 한국어과정 외에 독일어, 일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용적인 진로체험, 다문화가정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익산외국어교육센터는 구 이리남중 부지에 건물 1,665㎡ 지상 2층 규모로 설립되며, 올해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20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승화원, 무연고 유골 5560기 합동 매장

군산시 승화원은 효율적인 봉안관리 및 공간 활용과 더불어 무연고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추모관에 10년 이상 안치되어 있는 무연고 유골 5,560기를 시 공설묘지 유택동산 2개소에 합동 매장했다.

이번에 합동 매장한 무연고 유골은

금강광역상수도사업에서 발굴된 무연고 유골 1,207기를 비롯해 군산교도소 이전사업 184기, 군산대학교 이전사업 307기, 은파관광지조성사업 1,367기 등 11개 사업에서 발굴된 무연고 유골 총 5,560기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최근 무연

고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한 사망자의 기본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 장사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평안한 장례문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의료급여제도 순회교육 실시

군산시는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방법을 알리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인정을 도모하기 위해 27일 대아편사무소에서 의료급여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알아 할 병명 이용절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등 복잡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수급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으며, 보건소와 연계해 치매 교육 및 혈압 당뇨 체크 등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질병에 취약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료급여 순회교육과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건강한 군산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 순회교육은 1분기 대아편을 시작으로 2분기(2분기), 수송동(3분기), 옥서면(4분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